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19.(수) 11:00 < 7.20.(목) 조간 > 배포 2023. 7. 19.(수)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 수출 대표기업 엘지전자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7월 19일(수) 엘지전자 마곡사업장을 방문하여 수출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여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표원은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6월 30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간담회(7월 5일), 주요 해외기술규제 설명회(7월 12일)를 개최하는 등 정부·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국표원장의 기업 방문은 지난 3월 삼성전자 방문에 이은 두 번째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학물질, 에코디자인에 대해 엘지전자를 비롯한 기업, 협·단체와 대응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엘지전자 김종필 품질경영센터장은 그간 해외 규제 당국과 협상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 규제 공표 후 시행까지 짧은 기간으로 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중동시장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에, 진종욱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고 화답하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해외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고, “엘지전자의 건의를 포함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지난 2월 전면 개편하여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서 <총괄>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담당자	연구관	배종수 (043-870-5521)
			연구사	박수진 (043-870-55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